



27~29일

목포시 추천 7개 프로그램 들여다보기

‘어생 그랜드 세일’ 저렴하게 구입
제철 해산물 등 다양하게 맛보고
길놀이·항구음악회·서커스공연
1970년대 목포 선창 옛 정취 가득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주 무대까지 1.6km 구간에서 펼쳐질 ‘풍어파시 길놀이 한마당’ 모습.



남진 야시장 전경.

신명나는 파시 한판... 입과 눈이 즐거운 가을 항구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소원 물고기 등 터널.



항구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파시 모습.

축제가 어울리는 계절, 가을이다. 이 맘때 목포로 가면 역사 지결한 항구 분위기에 취하며 서해 바다의 별미(別味)를 맛볼 수 있다.

목포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신명나는 파시 한판!’이라는 주제로 ‘목포항구축제’를 여는 이유다. 목포항과 삼학도 중앙공원을 돌며 사람 냄새 나는 항구의 풍경을 만나고 싱싱한 회, 해산물을 먹다보면 가을의 추억을 쌓아갈 수 있다. 목포항을 따라 수산물 파시촌이 즐비해 늘어서고 평화광장 앞바다가 수심 적의 갈치잡이 배들이 내건 집어등으로 밤을 환히 밝혔다. 삼학도 중앙공원에는 가을 바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가 60개가 넘는다. 축제 기간, 펼쳐지는 항구를 느낄 수 있는 목포시 추천 7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입이 즐거운=‘어생(魚生) 그랜드 세일’은 제철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전통 파시 프로그램 중의 하나다. 목포 수산물 브랜드인 ‘어생’의 싱싱한 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입’이 즐거워지려면 축제 기간, 최고·최저·이벤트 경매 등으로 나눠 11차례 진행되는 경매 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기본이다.

삼학도 요트 마리나 앞에 조성되는 남진야시장과 남행열차 포차는 싱싱한 제철 해산물 등 항구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눈이 즐거운=시민 주도형 스토리텔링 길놀이로, 풍어를 상징하는 만선기의 5가지 색을 주제로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주 무대까지 1.6km 구간에서 펼쳐지는 ‘오채(五彩) 길놀이’가 눈길을 끈다. 황·청·백·적·흑색 등의 그룹으로 나눠 펼쳐지는 시민 화합과 목포항의 발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다.

목포가요제를 비롯해 바다콘서트, 항구음악회는 축제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 행사다. 남진을 비롯, 태진아, 송대관 등 대형 가수가 총출동한다. 시립예술단체 아트 페어, 다문화가족의 전통춤과 노래, 관람객이 즉석 참여하는 선창 콘서트대회, 동춘서커스 공연 등도 눈이 즐거운 행사로 꼽힌다.

◇북적이는 항구를 느끼려면=목포 근해 안강망 선주협회와 소형 안강망 선주협회는 어선 20여척에 만선기를 달고 펼쳐지는 항구 모습을 되살린다. 야간에도 집어등으로 밤 바다를 밝혀 북적이는 항구의 풍경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배 위에서 이뤄지는 안강망 선주협회와 목포수협이 ‘선상 어물전 경매와 중매인 체험’도 바닷가 항구의 모습을 담아갈 수 있는 행사다.

◇삼학수로 체험하려면=‘삼학수로 올림픽’은 삼학도 수로를 따라 펼쳐지는 행사로, 전통 한선 노젓기 경연대회가 마련됐다.

전통 한선 노젓기 대회는 조선명인 조일옥 선생이 보유한 한선 2척을 이용해 목포시 관내 23개 동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삼학도 수로에서 펼쳐진다. 카누·카약 경기도 진행된다.

삼학도 카약 체험장 일원에서 열리는 낚시 대회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추억의 목포 선창을 체험하려면=1970~80년대 목포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DJ 음악대방, 난영사진관, 미용실, 솜사탕과 달고나, 삼학분교 교실, 평화상회(점빵), 만화방, 오락실 등 조성됐다. 일제 강점기였던 1940년대만 해도 조선 3대 항구로 꼽혔던 흔적도 살펴볼 수 있다.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소원 물고기 등(燈)을 배경으로 한 목포항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사진 촬영 명소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바다 위 파시서 별미 즐기고 펼쳐지는 목포 맘껏 느끼세요”

박홍률 목포시장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27~29일 열리는 항구축제와 관련, “많은 지역민들이 항구 도시 목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축제의 컨셉을 ‘파시’와 ‘추억’으로 잡고 펼쳐지는 항구도시 목포의 풍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축제 개최 시기도 바꿨다.

그는 “풍요롭고 북적이던 항구도시 목포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다 위에서 펼쳐진 어시장, 파시를 강조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축제 개최 시기를 여름에서 가을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시를 강조하기 위해 전통파시와 근대 파시로 나눠 파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늘렸다”면서 “어물전 난장과 안강망 배 위에서 펼쳐지는 선상 경매도 항구의 북적임을 느낄 수 있는 행사”라고 귀띔했다.

박 시장은 “주 무대를 서부항운노조 앞 주차장에 꾸미고 중앙공원, 경매프린지, 흥어광장프린지, 난영프린지 등 4곳에 무대를 분산 설치, 곳곳에서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난영 공원 일대에 북고풍 거리를 조성하고 삼학수로 이용한 경연·체험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목포항 일대에 도 소원 물고기 등(燈)을 달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편, 목포시는 이번 축제를 위해 보해와 하이트 진로의 협조를 받아 소주·맥주병(각 3만병)에 항구축제 홍보문구를 붙이고 포스터 3000장을 전국 유명 맛집에 부착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축제 1일차 - 10월 27일(금)			축제 2일차 - 10월 28일(토)			축제 3일차 - 10월 29일(일)		
주무대	경매포인트	중앙무대	주무대	경매포인트	중앙무대	주무대	경매포인트	중앙무대
10:00 ~ 12:00					제1회 목포항구축제 그랑프리대 (10:00~16:00)			
12:00 ~ 13:00			항구어물축제 남도 보육 교직원 학부모 대회 (10:00~14:00)					
13:00 ~ 14:00		선창 경매대회 (한국어물축제) 송년행회 목포지회	리허설-양성학식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항구 경매운동회	리허설- 시민예술단체	시민 참여대행	항구 경매운동회
14:00 ~ 15:00	ALJMSA 열광무대 (한국어물축제) 연주회	항구 국악전지	리허설-양성학식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항구 국악전지	리허설- 시민예술단체	시민 참여대행	항구 경매운동회
15:00 ~ 16:00	리허설-항구음악회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항구어물축제 명상학술회 발표회	항구 국악전지	항구 국악전지	리허설- 시민예술단체	시민 참여대행	항구 경매운동회
16:00 ~ 17:00	황금리생선 (어물축제) 결구대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리허설-고유원희희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리허설- 시민예술단체	시민 참여대행	항구 경매운동회
17:00 ~ 18:00	황금리생선 (어물축제) 결구대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리허설-고유원희희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리허설- 시민예술단체	시민 참여대행	항구 경매운동회
18:00 ~ 19:00	황금리생선 (어물축제) 결구대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리허설-고유원희희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리허설- 시민예술단체	시민 참여대행	항구 경매운동회
19:00 ~ 20:00	황금리생선 (어물축제) 결구대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리허설-고유원희희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리허설- 시민예술단체	시민 참여대행	항구 경매운동회
20:00 ~ 21:00	황금리생선 (어물축제) 결구대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리허설-고유원희희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리허설- 시민예술단체	시민 참여대행	항구 경매운동회
21:00 ~ 22:00	황금리생선 (어물축제) 결구대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리허설-고유원희희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어생(魚生) 그랜드세일	리허설- 시민예술단체	시민 참여대행	항구 경매운동회

순창의 전통장(醬), 세계인의 일품소스(SAUCE)

제12회 순창장류축제

2017 순창 세계소스박람회

2017.10.20(금)~10.22(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0~2017 8년연속 문화관광축제

- ※ 순창읍내, 공설운동장 앞 ↔ 축제장 셔틀차량운영
- ※ 붉은옷 착용시 축제장 상품구매 할인 혜택
- ※ 축제 대표 프로그램
 - 2017인분 고추장 떡볶이 파티
 - 장류 주먹밥 모자이크 만들기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 고(鼓)추(秋)장(場)락(樂) 퍼레이드
 - 화끈락(樂) 페스티벌
 -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어먹기, 전통장류 소스만들기 등
 - 민속마을 불빛쇼(EDM), 좀비야 놀자 등 야간 프로그램 운영

주최/주관: 순창군/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www.jangfestival.co.kr